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우정관계 질투의 매개효과*

김 주 혜

박 은 영†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

조교수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거부민감성과 우정관계 질투가 매개하는지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구·경북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556명(여학생 318명, 남학생 2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중학생 자녀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거부민감성과 우정관계 질투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확립된 자녀의 거부민감성이 우정관계 질투를 증가시킴으로써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성별에 따른 경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서 거부민감성으로 가는 경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서 관계적 공격성으로 가는 경로, 우정관계 질투에서 관계적 공격성으로 가는 경로에서 성차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중학생 자녀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별을 비교하여 차별화된 결과를 통해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고 치료적 개입방향을 모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관계적 공격성, 부모의 심리적 통제, 거부민감성, 우정관계 질투

* 본 원고는 김주혜(2019)의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일부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박은영,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대 204-2호, Tel: (053)850-3204, E-mail: eyp0202@cu.ac.kr

수 년 간 교내 왕따나 따돌림 현상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집단 따돌림과 사이버 폭력이 전체 피해 유형의 3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20). 특히 2019년 실시된 1차 조사에서 다른 피해 유형의 비중은 감소한 것과 달리 집단 따돌림과 사이버 폭력의 비중이 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아 최근 SNS 소통이 늘어나면서 집단따돌림의 형태가 더 다양해지고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처럼 직접적이고 명백한 신체적 폭력보다 교묘한 유형의 따돌림이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기의 공격성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의 공격성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외현적으로 명백히 관찰되는 유형보다는 의도적으로 개인의 관계나 감정을 위협하는 수동 공격적인 성향의 관계적 공격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박민정, 최보가, 2004, Crick & Grotpeter, 1995). 관계적 공격성은 소문 퍼뜨리기, 또래 집단에서 소외시키기, 친구를 헐담하기 등의 형태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붕괴시키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가 아니면 알아차리기 힘들고 공격을 행하는 장면을 포착하기도 쉽지 않다. 관계적 공격성은 청소년기에 더 증가하고 일차적 피해 뿐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이차적 피해가 수반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를 감소시키고 예방하기 위한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Crick, Ostrov, & Werner, 2006).

발달 과정을 보았을 때 청소년기는 아동기 후 성인기로 넘어가기 전 과도기적 단계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청소년기는 인지, 정서, 사회적인 면에서의 다양한 변화에 적응해가는 시기로 특히 청소년기의 진입기인 중학생은 불안정한 감정과 혼란감을 오롯이

경험하는 시기로 설명된다(이안나, 박승민, 2018). 이러한 심리적 혼란감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부정적 정서를 표출하는 공격성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관계적 공격성은 사회지능이 높아지는 중학생 시기에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는데(이하연, 박주희, 2014, 이춘재, 광금주, 2000) 이는 아동후기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분노나 적대감을 집단 규범에 용인되는 방식으로 표출 수단을 변경하기 때문이다(이홍, 김은정, 2012). 또한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또래에 대한 의존성과 자기 개방이 증가하기 때문에 불평,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또래 안에서 은밀하게 표출함으로써 관계적 공격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Levendosky, Okun, & Parker, 1995). 관계적 공격성이 높을 경우 타인과 친밀한 관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고, 심리·사회적으로 부적응적 문제를 보이며(Nelson & Crick, 2002) 심할 경우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장호연, 2016; Owens, Shute, & Slee, 2000).

관계적 공격성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들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또래관계, 교사의 행동 등의 환경적 요인, 거부민감성, 우정관계 질투, 충동성, 분노, 자기에 등의 개인적 요인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관계가 또래 관계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행동을 학습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psychological control)에 주목하였다. 심리적 통제는 부모가 자녀의 개인적이며 심리적인 영역에 지나치게 영향력을 발휘하여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Barber, 1996). 구체적으로 부모가 바라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자녀에게 교묘하게 실망감을 전달하고 비난하며 자녀가 죄의식을 느끼

게 하는 등의 방식을 이용하는 양육태도이다. 사회 영역 관점에서 심리적 통제는 개인이 속한 심리적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 영역을 보존하는 것이 심리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데 부모가 이런 사적인 영역을 지나치게 관리하고 통제하여 자기 조절 능력을 저해시킨다고 설명한다(Nucci, Killen, & Smetana, 1996, Soenens, Vansteenkiste, & Luyten, 2010). 따라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안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한 탐색과정을 방해하여 자녀의 행복감을 손상시키고 자녀의 지각을 건강하게 발달시키는 데 다양한 어려움을 줄 수 있다(Manzkeske & Stright, 2009). 또한 사회학습이론(Bandura, 1977)에 따르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가 잦을수록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관찰 및 모방하여 또래 관계 내에서 비슷한 행동 패턴을 보일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시기는 여전히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로 권력과 지위가 있는 부모를 모델링하여 관계적 공격성이 상대를 제어하는 효과적인 수단임을 확인하고 학습하여 자신의 또래 관계에 적용시킨다(이경미, 박주희, 2016). 즉, 심리적 통제의 애정 철회는 친구가 자신이 원하는 통제를 하지 않았을 때 무리에서 제외시키는 관계적 공격성과 표출 방식이 유사하므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Kuppens, Grietens, Onghena, & Michiels, 2009).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윤연정, 김경언, 2010, 김경아, 권혜수, 2015, 이다경, 염시창, 2015)에서도 부모가 수용, 인내, 지지 등의 온정적인 양육을 할 때는 자녀의 또래에 대한 공격성이 덜하였지만,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 시에는 청소년의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아 부모의 지나친 간섭이 자녀에게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는 심리적 상태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부모의 실질적인 양육태도와 다른 방식으로 양육태도를 지각할 수 있다. 따라서 양육태도를 측정할 때는 부모 보고보다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부모에 대한 자녀의 지각이 부모의 실제적 행동보다 자녀의 인성적, 행동적 특성들과 더 관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전유진, 2017; Rohner & Pettengill, 1985) 본 연구에서도 자녀가 지각하고 개념화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평가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다양한 개념들이 적용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거부 상황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동안 흔히 겪는 경험이다. 어떤 사람들은 거부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며 평정심을 가지지만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고 낙담하여 인간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Levy, Ayduk, & Downey, 2001). Downey와 Feldman(1996)은 거부민감성을 부모나 또래와 같이 의미 있는 인간관계에서 거부당할 것에 대해 걱정하고 거부를 타인보다 잘 지각하며 과잉 반응하는 인지적 처리 성향이라 정의하였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과거의 거부 경험을 회상하여 거부 도식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거부 도식이 활성화되면 거부 단서에 과잉 각성 되어 합리적인 대안을 고려하지 못한다(이희경, 김경희, 이흥권, 2014; Metcalfe & Mischel, 1999).

거부민감성은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데 주양육자인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거부를 당한 자녀는 거부를 당할 것이라는 내적 작동모델을 형성하여 중립 단서도 거부로 해

석하는 경향이 있다(Downey & Feldman, 1996).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무시당하고 조건적인 애정을 받은 청소년은 상대방의 행동에 적대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형성된 관계에서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이에 거부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을 적대적인 의도로 오지각하여 불안하고 위축되거나 자신이 먼저 공격 행동을 할 수 있다(홍상환, 이경연, 2013). 또래에 대한 의존성 및 소속 욕구가 절정에 이르는 청소년기(Kroger, 2000)에는 또래로부터 거부당할 것에 대한 걱정으로 공격적 반응이 더 두드러질 수 있는데(이승연, 김세진, 2017) 거부민감성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공격성을 외현적으로 드러내면 관계에서 거부당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져 거부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이 먼저 또래를 소외시키고 조종하려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김희경, 김해란, 2017; 신희수, 안명희, 2013; Downey, Khouri, & Feldman, 1997).

거부민감성을 다룬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애착을 다루고 있는데 불안정한 애착을 보이는 아동들은 거부민감성이 유의하게 높았으며(손은경, 민하영, 2011) 부모로부터 거부적인 양육과 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녀 역시 거부민감성이 유의하게 높았다(Downey, Khouri, & Feldman, 1997). 또한 부모가 수용적이고 성취에 대한 강요가 낮을수록 아동의 거부민감성이 낮았고 구속할 경우 거부민감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것(전혜련, 이지연, 2014)을 고려할 때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거부민감성을 발전시키는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거부민감성을 다룬 연구는 대부분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김희경과 김해란(2017)의 연구에서 여자 청소년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

와 거부민감성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처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거부민감성 간에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개인에게 발달된 거부민감성은 전 생애에 걸쳐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정우진, 2017) 성인기 전의 거부민감성은 이후 거부민감성을 예측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거부민감성이 또래 관계 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된다면 이에 근거하여 거부에 대한 단서를 보다 명확하고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인지 치료적 개입과 거부 단서에 주의를 집중하여 부정적 정서를 경험 시 주의를 적절히 전환하는 등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래와 원활한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한 청소년기는 또래 관계에서 교감을 확인하는 욕구가 급증하는 시기로 우정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질투를 느낄 수 있다. 학자마다 질투의 정의는 다르지만 사회적이건 개인적이건 단편적인 정서로 설명할 수 없는 인지, 정서, 행동 등의 여러 측면과 연관되어 있으며 항상 사회적 삼자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정서로 표현된다는 공통된 견해를 보인다(심은신, 이동훈, 2011). Besag(2006)은 우정관계에서 질투란 일반적으로 우정관계에서 새로운 제3자의 개입으로 우정관계를 구성했던 또래가 기존관계가 위협받거나 상실될지도 모른다고 인식할 때 생겨나고 애정, 자존심, 경쟁의식, 공포, 분노 등이 결합된 반응이나 상태로 정의한다(배재현, 최보가, 2006). 청소년기는 우정관계를 재조직하는 시기이므로 우정관계 질투가 발생하는 상황이 증가한다. 관계 안에서 질투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친구를 외롭게 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가하는 가해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래집단에서 수용되는 정도가 낮다(강다겸, 장재홍, 2013; 이안나, 박승민, 2018). 그렇기에 우정 관계가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경험하는 질투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질투에 대한 연구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형제관계(최윤미, 2005),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인관계(김교현, 2004) 등이 있으며 최근에 와서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우정관계 질투에 관한 연구(박우람, 홍상황, 2015; 이희경, 박미란, 이지연, 2013)가 이루어지고 있어 우정관계에 대한 연구는 더 많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우정관계 질투는 외적 상황 자체가 아닌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변수이다(박찬은, 김도연 2017; Novaco, 1994). 즉, 질투가 유발되기 전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빠르고 직관적인 인지적 평가가 선행되고 이후 질투의 반응과 강도가 결정된다(배재현, 최보가, 2006).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상대의 의도를 부정적으로 추론하며 거부당할 것이라고 느끼는 두려움이 있을 때 우정관계 질투가 나타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거부민감성과 우정관계 질투를 다룬 직접적인 연구는 미비하나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박우람과 홍상황(2015)은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이 불안하고 실망하고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또래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발달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어린 시절 소중한 사람으로부터 반복적인 거절로 중요한 사람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낮은 자존감,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홍상황, 이경연, 2013). 즉,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중립 자극을 의도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며 이러한 인지 전략은 정서적으

로 과잉 반응을 유발하여 질투, 적대감, 분노 등으로 나타난다(Downey & Feldman, 1996). 또한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은 정서를 적절히 인식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고(김선미, 홍상황, 2014; 장미희, 이지연, 2011), 우정관계에서 갈등이 야기되어 관계가 상실되고 거부당할지도 모른다는 인식 시 분노 및 불안, 거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의 혼합된 질투 정서가 발생하게 될 수 있다(Volling, McElwain, & Miller, 2002).

가족에서 또래로 준거집단을 옮기는 청소년들은 친밀한 친구를 많이 만들기를 원하며 필연적으로 질투 정서가 나타나 자신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또래를 공격할 수 있다(강다겸, 장재홍, 2013). 하지만 질투를 반복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또래에게 수용되지 못하게 되므로 질투 정서를 강하게 표현하는 것은 우정관계에서 위협적인 요소다(Walter & LaFreniere, 2000). 우정관계 질투와 관계적 공격성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중학생의 우정관계 질투가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나타났지만, 신체적 공격성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Culotta & Goldstein, 2008). 또한 우정관계 질투가 높으면 냉정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우정관계 지속에 대한 기대로 간접적 공격을 함으로써 우정관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배재현, 최보가, 2006), 질투가 높은 청소년의 경우 친구의 행동을 의도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관계적 공격성이 초래된다고 보고되는 연구(심은신, 이동훈, 2011)를 통해 우정관계 질투가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시사된다.

한편, 최근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며 성별 차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아동부터 성

인기까지 공격성 차이를 분석한 메타 연구에서 Archer(2004)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14세-17세 사이에 관계적 공격이 가장 높고 관계적 공격성을 또래나 교사가 평가했을 때 여학생이 더 높게 나왔다는 결과와 더불어 여학생의 가해 및 피해가 남학생보다 많다는 연구결과(강다겸, 장재홍, 2013; 심은신 이동훈, 2011; Crick & Grotpeter, 1995)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관계적 공격성이 여성의 공격성이라는 편견과 반대로 성차가 뚜렷하지 않다는 보고(이경미, 박주희, 2016; 이서란, 2014)도 있어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시사되며 본 연구에서는 성차를 더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거부민감성과 우정관계 질투가 순차적으로 이중 매개할 것을 가정하였으며 각 경로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탐색하여 실제 학교에서 경험하는 관계적 공격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의 IRB 승인(CUIRB-2019-0012)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 대구, 경북 지역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600명의 중학생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를 받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불성실한 응답으로 판단되는 44부를 제외한 총 556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총 연구 대상자 556명 중 남학생은 238명(42.8%), 여학생은 318명(57.2%)이었다.

측정도구

관계적 공격성

Marsee, Kimnis와 Frick(2004)이 개발한 자기보고형 또래 갈등 척도(Peer Conflict Scale, PCS)를 한영경(2008)이 번안한 것을 하문선과 김지현(2013)이 수정·보완하고 타당화한 한국 초기 청소년 공격성 척도(Korean Peer Conflict Scale, K-PC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을 관계적, 외현적 공격성으로 나누어 측정할 수 있도록 각각 4문항씩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는 8문항만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되어 있으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8점에서 32점이며 높은 점수일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은 '나도 화나게 한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 새 친구를 사귈다.' 등이 있다.

하문선과 김지현(2013)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0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88, 남학생의 경우 전체 .87, 여학생은 .89였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

Barber(1996)가 개발한 청소년용 심리적 통제 척도(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 Report: PCS-YSR)를 전숙영(200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PCS-YSR를 청소년용으로 타당화한 척도는 없지만 동일한 내용의 척도를 대학생들

대상으로 최명진과 김은정(2018)이 타당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숙영이 번안하고 최명진과 김은정이 타당화한 척도를 임상심리전문가 1인과 함께 중학생에게 적절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청소년이 생각하는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에 대해보고 하게 되어 있지만, 부모의 성별이 영향을 받기 보다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심리적 통제를 행하는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선행연구에 따라 부모로 합쳐 살펴보았다(이경미, 박주희, 2016). 이 척도는 자기표현 제한, 감정 불인정, 비난, 죄책감 유발, 애정철회, 불안정한 감정기복의 6개 하위요인으로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16점에서 64점으로 높은 점수일수록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수준 역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은 '나의 부모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다른 말을 꺼내시곤 한다', '나의 부모님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모두 아시는 것처럼 행동하신다. 등이 있다.

5~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Barber, 1996)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어머니가 .83, 아버지가 .80이었으며, 전숙영(2007)이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측정한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83이었고, 최명진과 김은정(2018)의 연구에서는 .93, 본 연구에서는 .89, 남학생은 .87, 여학생은 .89였다.

거부민감성

Downey와 Feldman(1996)이 개발한 아동용 거부민감성 척도(Children's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CRSQ)를 박지윤과 정영숙(2008)이

한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을 홍상황(2012)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별로 교사, 또래와 관련된 상황을 제시한다. 거부민감성의 하위요인은 거부불안, 거부분노, 거부우울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각각의 상황에서 거절을 당하는 것에 대해 불안한지, 화가 나는지 또는 우울한지 묻고 실제 그 상황에서 거절을 당한다면 어느 정도의 크기일지에 대한 거부 예상 정도를 추가적으로 물으며 6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각 하위 요인들의 점수는 측정된 점수에 거부 예상 점수를 곱한 값인 거부불안 민감성(거부불안 점수 \times 거부예상 점수), 거부분노 민감성(거부분노 점수 \times 거부예상 점수), 거부우울 민감성(거부우울 점수 \times 거부예상 점수)으로 점수를 산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요인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총점을 사용했으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12점에서 432점이며 이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민감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은 '유명한 사람이 우리 학교를 방문할 예정이다. 선생님께서 유명한 사람과 만날 학생을 뽑을 것이다. 나는 선생님께서 나를 뽑아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궁금해한다.' 등이 있다.

하수진(2017)의 선행연구에서 하위요인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각 하위요인이 미치는 영향보다 거부민감성 전체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에 주목하였기 때문에 하위요인을 구분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척도의 개발 당시 박지윤과 정영숙(2008)

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전체 .8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96, 남학생은 .85, 여학생은 경우 전체 .87였다.

우정관계 질투

Low와 Parker(1999)가 개발한 우정관계 질투 척도(Friendship Jealousy Questionnaire; FJQ) 27문항 중 배재현(2006)이 변안하고 수정한 11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11점에서 55점으로 높은 점수일수록 우정관계 질투를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은 '토론 수업시간에 2명씩 조를 짜려고 한다. 내가 ○○에게 같은 조를 하자고 말하기도 전에 ○○는 우리 반의 다른 친구와 같은 조를 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와 같이 질투 상황을 제시한 후 각 상황에서 얼마나 질투심을 느끼는지 측정한다.

배재현(2006)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88, 남학생은 .87, 여학생은 89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및 상관관계는 표 1과 표 2에 제시하였다. 각 변인들의 정규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의 값을 살펴본 결과 각 기준치인 3과 10을 초과하지 않아 모든 변인의 정규분포성이 충족되었다(Kline, 2010).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여학생의 모든 변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학생의 경우 부모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N=556)

변인	남 (N=238)				여 (N=318)			
	M	SD	왜도	첨도	M	SD	왜도	첨도
심리적 통제	27.51	7.30	.41	-.19	26.11	8.50	1.26	1.72
거부민감성	176.83	106.78	1.64	4.90	230.38	139.21	1.37	2.44
우정관계 질투	20.54	10.12	1.28	1.14	28.05	10.83	.43	-.59
관계적 공격성	10.21	3.20	1.33	.53	11.60	4.26	1.10	.43

표 2.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N=556)

	1	2	3	4
1. 관계적 공격성		.29**	.56**	.51**
2. 심리적 통제	.56**		.35**	.11
3. 거부민감성	.63**	.58**		.44**
4. 우정관계 질투	.57**	.20**	.49**	

* $p < .05$, ** $p < .01$ 대각선 위는 남학생, 아래는 여학생

의 심리적 통제와 우정관계 질투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측정모형 검증

잠재변인과 관련 변인들 간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을 구성하는 데 있어, 우정관계 질투는 하위변인이 없으므로 문항꾸러미를 구성하여 요인 적재치의 평균이 유사하도록 문항을

할당하였다. 각 변인을 개별적 잠재변인으로 구성한 측정모형(4요인)의 적합도를 모든 측정변인을 하나의 잠재변인으로 구성한 대안모형(1요인)의 적합도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245.036$, $df=71$, $CFI=.973$, $TLI=.965$, $SRMR=.036$ 으로 나타나 양호 수준이라고 평가되었다(홍세희, 2000; Browne & Cudeck, 1993). 하지만 대안모형의 적합도는 $\chi^2=293.326$, $df=77$, $CFI=.557$, $TLI=.476$, $SRMR=.193$ 으로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더 양호한 수준으로 확인되어 측정모형을 채택하였으며,

표 3. 남녀집단의 동일성 검증에 대한 적합도 지수

	χ^2	df	<i>CFI</i>	<i>TLI</i>	<i>SRMR</i>	$\Delta\chi^2$	Δdf
기저모형	312.855	144	.973	.966	.047	25.1	10
측정동일성모형	337.955	154	.971	.965	.052		

표 4. 측정모형의 수렴타당도

(*N*=556)

	측정변수	S.R.W	C.R	AVE	CR
심리적통제	자기표현 제한	.73 ^{***}	18.80 ^{***}	.55	.94
	감정 불인정	.61 ^{***}	15.01 ^{***}		
	비난	.81 ^{***}	21.38 ^{***}		
	죄책감 유발	.62 ^{***}	15.14 ^{***}		
	애정철회	.84 ^{***}	22.42 ^{***}		
	불안정한 감정기복	.82 ^{***}	FIX		
거부민감성	거부불안	.96 ^{***}	61.15 ^{***}	.91	.70
	거부분노	.92 ^{***}	48.11 ^{***}		
	거부우울	.98 ^{***}	FIX		
우정관계 질투	질투1	.89 ^{***}	34.54 ^{***}	.84	.93
	질투2	.93 ^{***}	38.72 ^{***}		
	질투3	.93 ^{***}	FIX		
관계적 공격성	주도적	.78 ^{***}	18.45 ^{***}	.68	.94
	반응적	.89 ^{***}	FIX		

****p*<.001

이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다음은 측정모형에 대한 수렴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먼저 수렴타당도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나타난 변인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61~.98로 수용 가능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또한 모든 변인의 AVE값이 Hair, Black, Babin, Anderson과 Tatham(2006)이 제시한 .50를 상회하였으며, 개념신뢰도 값이 .7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렴타당성이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각 변인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상관이 .80을 넘지 않는 수준이므로 변별타당도가 검증되었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표 4와 같다.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의 측정모형이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한 검증 결과, 측정동일성모형은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으며, 기저모

형과 측정동일성 모형 간에 χ^2 차이 값이 유의한 차이($\Delta\chi^2=25.1, \Delta df=10$)가 없었으므로 여학생과 남학생 집단의 측정모형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을 매개하는 변인들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팬텀변인(phantom variable)을 생성한 후 10,000번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은 표본에서 반복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표준오차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신뢰구간의 상한 값과 하한 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매개효과가 안정적임을 의미한다(Precher & Hayes, 2008).

표 5. 측정모형의 적합도 (N=556)

	χ^2	df	CFI	TLI	SRMR
측정모형	245.036	71	.973	.965	.036
대안모형	293.326	77	.557	.476	.193

표 6. 최종모형의 직·간접효과 경로

경로	전체 (N=556)		남 (N=238)		여 (N=318)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95% CI]		[95% CI]		[95% CI]
1 → 2 → 4	.269	.152*** [.092 ~ .229]	.100	.130*** [.064 ~ .229]	.392***	.129** [.038 ~ .237]
1 → 2 → 3	-	.488*** [.381 ~ .608]	-	.336*** [.198 ~ .540]	-	.513*** [.390 ~ .653]
1 → 2 → 3 → 4	.269	.112*** [.081 ~ .155]	.100	.060*** [.030 ~ .117]	.392***	.133*** [.092 ~ .191]

** $p < .01$, *** $p < .001$, 1. 심리적 통제, 2. 거부민감성, 3. 우정관계 질투, 4. 관계적공격성

분석결과, 먼저 전체 중학생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B=.152, p<.001$),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정관계 질투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488, p<.001$),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를 거부민감성과 우정관계 질투가 순차적으로 이중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112, p<.001$).

남학생의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B=.130, p<.001$),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정관계 질투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336, p<.001$),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를 거부민감성과 우정관계 질투가 순차적으로 이중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060, p<.001$). 여학생 역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B=.129, p<.01$),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정관계 질투의 관계에서 거

부민감성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513, p<.001$),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를 거부민감성과 우정관계 질투가 순차적으로 이중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133, p<.001$). 구체적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다집단 분석

본 연구에서 선정한 최종모형의 구조적 관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의 측정모형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남녀 각 집단 간의 경로계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경로계수에 등가제약을 가하지 않은 측정동일성 모형과 제약을 가한 구조동일성 모형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차이값이 $\Delta\chi^2=28.80, \Delta df=5$ 로 유의하여 남녀 두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 \rightarrow 거부민감성($\Delta\chi^2=11.779, p<.01$), 부모의 심리

표 7. 남녀집단별 경로 차이 검증

모수	남		여		χ^2 변화량	TLI 변화량
	B	β	B	β		
1 \rightarrow 2	2.35	.39***	4.12	.62***	11.779**	.002
1 \rightarrow 4	.10	.12	.39	.40***	13.573***	.002
2 \rightarrow 3	.14	.45***	.12	.49***	.638	.000
2 \rightarrow 4	.06	.39***	.03	.21**	3.132	.000
3 \rightarrow 4	.18	.39***	.26	.45***	3.847*	.000
모든 경로에 동일성 제약					28.800***	.003

* $p<.05$, ** $p<.01$, *** $p<.001$, 1. 심리적 통제, 2. 거부민감성, 3. 우정관계 질투, 4. 관계적공격성

적 통제→관계적 공격성($\Delta x^2=13.573, p<.001$),
 우정관계 질투→관계적 공격성($\Delta x^2=3.847, p<.05$)의
 경로에서 여학생과 남학생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준화 계수를 살펴보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거부민감성
 경로에서 여학생은 $\beta=.62(p<.001)$, 남학생은 $\beta=.39(p<.001)$,
 부모의 심리적 통제→관계적 공격성 경로에서 여학생은
 $\beta=.40(p<.001)$, 남학생은 $\beta=.12$, 우정관계 질투→
 관계적 공격성의 경로에서 여학생은 $\beta=.45(p<.001)$,
 남학생은 $\beta=.39(p<.001)$ 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 집단보다
 여학생 집단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거부민감성과
 관계적 공격성에, 우정관계 질투가 관계적 공격성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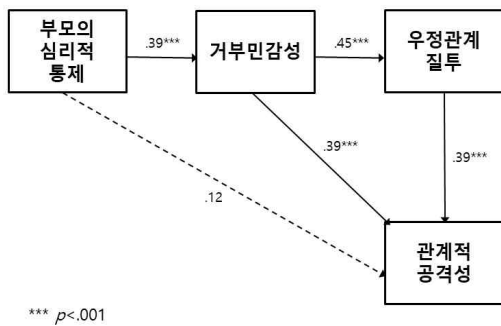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남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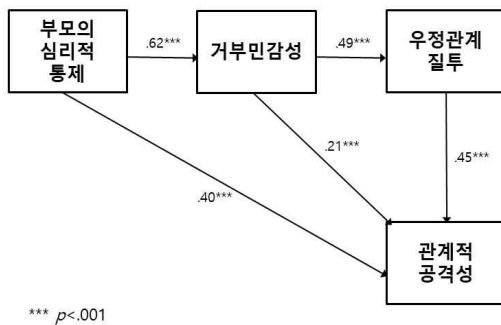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여학생)

논 의

본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우정관계 질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이해를 확장시켜 관계적 공격성의 감소 및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은밀하게 행해지는 관계적 공격성이 증가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상담자 및 교사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녀가 행동하지 않았을 때 죄의식을 느끼게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는 등의 방식으로 양육한다면 자녀의 사고과정과 정서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즉, 부모의 간접적 양육은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게 하여 거부민감성으로 발달하게 된다(이경미, 박주희, 2016; Erozkhan, 2009). 이로 인해 또래 관계에서 거절을 더 잘 인지하여 악의 없는 행동 역시 거부로 부호화한다. 이러한 경험을 지속적으로 겪는다면 아이는 내적으로 부정적 감정이 쌓이게 되고 대인관계에서 불만족을 경험하게 된다. 청소년들은 불편감을 해소하고 표출하기를 원하지만 다시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간접적인 관계적 공격성으로 표출하게 됨을 시사한다.

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정관계 질투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우정관계 질투의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유의하게 나타났다.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심리적 통제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거부에 민감하게 되므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정서를 적절히 표현하거나 조절하지 못한다(김선미, 홍상황, 2014). 청소년 시기에 질투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정서이지만(강다겸, 장재홍, 2013), 특정 상황에서 누구나 경험하는 정서가 아닌 개인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개인차는 거부민감성과 같은 개인의 정서, 인지적 취약성으로 설명 가능하다(박우람, 홍상황, 2015). 즉, 거부민감성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우정관계에서 자신의 친구를 잃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제3자의 의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강한 우정관계 질투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질투로 인해 좌절과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가 높은 청소년은 또래 집단에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는데(이희경, 박미란, 이지연 2013), 특히 사회지능이 발달하는 중학생 시기의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비난이 적고 잘 드러나지 않는 공격적인 전략을 사용함을 시사한다.

셋째, 잠재변인간의 경로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차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 집단 간 경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거부민감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우정관계 질투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거부민감성으로 가는 경로를 살펴보면, 여학생 표본에서

의 영향력이 남학생 표본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가족으로부터 독립시기가 더 늦고(김희경, 2016), 가족관계에 더 민감하다(Sheeber, Hops, Alpert, Davis, & Andrews, 1997). 따라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경험한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이후 거부민감성 발현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여학생 표본에서만 유의하였다. 이는 여학생의 심리적 자율성을 침해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을 억제할수록 또래의 관계에 손상을 입히는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김경아, 권혜수, 2015; 이경미, 박주희, 2016; 이하연, 박주희, 2014)와 일치하였다. 하지만 남학생의 경우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우울,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 증상이 직접 영향을 미치기보다 자기 관련 사고와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우울, 공격성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선행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김희경, 2016). 즉, 남학생의 경우 심리적 통제라는 환경적 요인보다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요인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우정관계 질투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역시 여학생 표본에서의 영향력이 남학생 표본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친구를 소유하려고 하는데, 특히 여학생의 경우 나만의 단짝 친구가 있기를 원하며 또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질투정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적 공격성으로 표출될 수 있다(강다겸, 장재홍, 2013)는 연구와 일

치하는 결과이다. 남학생은 신체적 우세함을 더 중시하지만 여학생은 사회적 상황과 또래 관계에 더 가치를 두고 제 3자로 인해 기존의 우정관계가 변화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배재현, 최보가, 2007, Crick & Grotpeter, 1995). 따라서 친구와 멀어질 위험을 느낄 때 또래에서 제외시키기, 뒤에서 헐뜯하기 등 관계를 중심으로 한 공격의 형태가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아직 우리나라는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역할기대를 가지고 있어 남학생의 경우 질투는 여자들이 주로 느끼는 정서이고 '표현하면 안 되는 정서'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강다겸, 장재홍, 2013). 이는 Fagot(1977)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는데 남아들은 질투를 표현할 경우 여자처럼 보인다고 놀림당하고 낙인이 찍힐 수 있어 질투표현을 두려워한다. 더불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정관계 질투 경험 및 표현이 더 많고 부적절한 표출을 많이 사용한다(Roth, 2002). 이는 여학생들이 우정관계에서 질투 정서를 잘못된 방식인 관계적 공격으로 표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질투 정서가 여학생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에서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켰다. 즉,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 거부민감성, 우정관계 질투라는 인지적, 정서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설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의해 유발된 거부민감성이 우정관계 질투를 증가시킴으로써 관계적 공격성을 유발한다는 연속적인 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세부 경로 역시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학생들은 우정관계 악화요인이 '다른 친구에 의해 기존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이라고 언급한 반면 남학생들은 '관심사의 변화'라고 언급하여 여학생들이 우정관계 질투에 더 민감하다고 추측할 수 있다(심은신, 이동훈, 2011). 따라서 여학생은 친구와 멀어질 위험을 느껴 질투를 경험할 때 은밀한 형태의 공격이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근거로 여학생이 높은 질투를 느낄 경우 자신에 대한 열등감 및 대인관계에서의 불안정감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상담이나 치료 장면에서 이러한 감정을 충분히 다루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셋째,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치료적 개입에 있어 개입이 용이한 심리적 기제들을 확인하였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우정관계 질투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쳐 우선적으로 개입해야할 요인에 관한 시사점이 제공된다. 즉, 거부민감성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거부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느끼는 불안, 분노, 우울 수준을 파악하고 인지 치료적 개입을 통해 비합리적 신념, 인지적 왜곡과 그 이면에 있는 사고를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이나 원하는 것을 전달할 때 애정을 교묘하게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심리적 통제를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을 학습할 수 있는 부모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시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자료를 중학생의 자기보고형 질문지에 의존하여 수집하였다. 관계적 공격성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부정적인 관계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자가 직접 자세히 설명하고 통제를 하여도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체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학생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정도로 체크하여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 자녀가 지각하는 양육태도의 정도를 각각 측정하고 부모, 자녀 모두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연구자가 사용한 우정관계 질투 척도 및 심리적 통제 척도의 경우 본 연구에서 적정 수준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보였으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었다. 우정관계 질투는 비교적 최근에서 관심을 받는 개념이고, 이는 또래관계가 중요해지는 청소년과 관련해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질문지의 타당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적으로 수집된 자료이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다소 제한이 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한 청소년이 관계적 공격성이 더 나타날 수 있지만, 역으로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된 문제가 심리적 통제를 끌어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종단 연구를 통해 이와 같은 가능성도 점검하여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관계적 공격성의 역동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발달과정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지만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

다. 따라서 부모 교육 및 부모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다겸, 장재홍 (2013). 여중생의 시샘, 질투 및 분노가 또래관계에서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0(3), 449-470.
- 교육과학기술부 (2020). *학교폭력 실태조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김경아, 권혜수 (2015).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 사회평가불안과 분노억제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3(1), 139-156.
- 김교현 (2004). 남자의 질투와 여자의 질투: 연인관계에서의 질투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4), 771-792.
- 김선미, 홍상황 (2014). 아동의 거부민감성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인식과 표현 능력의 매개효과. *초등상담연구*, 13(4), 409-429.
- 김희경 (2016). 남녀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 및 공격성의 관계: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경, 김혜란 (2017). 남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 및 공격성의 관계: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4(1), 107-135.
- 문용린, 최지영, 백수현, 김영주 (2007). 학교폭력의 발생과정에 대한 남녀 차이 분석. *교육심리연구*, 21(3), 703-722.
- 박민정, 최보가 (2004).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

- 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 한국가정관련학회지, 22(4), 95-104.
- 박우람, 홍상환 (2015). 아동의 거부민감성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 정서조절, 질투와 시샘의 순차적 매개효과. 초등상담연구, 14(1), 1-23.
- 박지윤, 정영숙 (2008). 아동의 거절상황 구성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2), 15-37.
- 박찬은, 김도연 (2017). 우정관계 질투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귀인성향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4(1), 23-39.
- 배재현 (2006). 청소년의 우정관계 질투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재현, 최보가 (2006). 남자 청소년의 우정관계에서 발생하는 질투정서와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 및 공격성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4(6), 87-102.
- 배재현, 최보가 (2007). 청소년의 우정관계 질투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아동학회지, 28(3), 19-44.
- 손은경, 민하영 (2011). 어머니 애착과 거절민감성이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2), 1-17.
- 신희수, 안명희 (2013).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임상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25(3), 621-641.
- 심은신, 이동훈 (2011). 여중생의 우정관계 질투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2), 21-42.
- 윤언정, 김경언 (2010). 부, 모의 심리적 통제 및 과잉기대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기애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8(8), 67-76.
- 윤은경, 신성희 (2013). 가족구조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한국간호과학회, 43(3), 321-330.
- 이경미, 박주희 (2016).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남녀 아동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7(4), 31-46.
- 이다경·염시창 (2015). 청소년이 지각한 애정적 양육태도와 공격성의 관계: 자아탄력성과 우울의 중다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3(2), 277-298.
- 이서란 (2014).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분노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과 죄책감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연, 송경희, 안소현 (2015). 초등학생의 부모-자녀 갈등, 거부불안민감성, 소속에 대한 욕구와 또래괴롭힘 동조행동과의 구조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3), 51-73.
- 이안나, 박승민 (2018).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우정관계 질투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5(9), 269-291.
- 이창한, 강민완 (2010). 결손가정의 기능적 특성과 적응유연성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학회보, 12(1), 175-200.
- 이춘재, 곽금주 (2000). 집단따돌림 경험 유형에 따른 자기개념과 사회적 지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65-80.
- 이하연, 박주희 (2014).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중학생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정책연구

- 원, 25(3), 233-258.
- 이 흥, 김은정 (2012). 청소년 공격성 하위 유형에 따른 인지 및 정서 특성. *청소년학연구*, 19(1), 227-250.
- 이희경, 김경희, 이흥권 (2014). 거부민감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1), 97-121.
- 이희경, 박미란, 이지연 (2013). 초등여학생의 우정관계 질투정서와 관계적 공격성에서 정서조절능력을 애착의 조절효과. *한국아동교육학회*, 22(3), 207-229.
- 장미희, 이지연 (2011). 모애착, 거부민감성, 정서조절능력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4(1), 35-53.
- 장호연 (2016).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관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숙영 (2007).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 - 학령기 후기 아동의 정서적 자율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탐색 -. *대한가정학회지*, 45(6), 101-111.
- 전유진 (2017).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을 매개로. *아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혜련, 이지연 (2014).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2(2), 5-18.
- 정우진 (2017). 대학생의 거절민감성과 대인관계 기능성의 관계: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명진, 김은정 (2018). 심리적 통제척도 (PCS-YSR)의 타당성 연구: 대학생을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34(2), 51-69.
- 최윤미 (2005). 아동과 가족, 상황특성이 형제간의 질투정서와 비조절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문선, 김지현 (2013). 한국 초기 청소년 공격성척도 (K-PCS) 타당화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4(1), 71-101.
- 하수진 (201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연구: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영경 (2008).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 요인.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영경, 김은정 (2011). 초기청소년기 관계적 공격성 하위유형의 특성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4), 985-1002.
- 홍상황, 이경연 (2013). 또래괴롭힘 피해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4(2), 283-315.
- 홍상황. (2012). 한국판 아동용 거부민감성질문지의 심리측정적 속성. *초등상담연구*, 11(3), 351-370.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rcher, J. (2004).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in real-world settings: A meta-analytic review.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8(4), 291-322.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 Development*, 67(6), 3296-3319.
- Besag, V. E. (2006). Bullying among girls: Friends or foe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7(5), 535-551.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age focus editions*, 154, 136-136.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3), 710-722.
- Crick, N. R., Ostrov, J. M., & Werner, N. E. (2006). A longitudinal study of relational aggression, physical aggression, and children's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2), 127-138.
- Culotta, C. M., & Goldstein, S. E. (2008). Adolescents' aggressive and prosocial behavior: Associations with jealousy and social anxiety.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9(1), 21-33.
- Downey, G., & Feldman, S.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327-1343.
- Downey, G., Khouri, H., & Feldman, S. (1997). Early Interpersonal Trauma and Later Adjustment: The Mediation Role of Rejection Sensitivity.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rauma: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8(1), 85-114.
- Erozkan, A. (2009). Rejection sensitivity levels with respect to attachment styles, gender, and parenting styles: A study with Turkish stude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37(1), 1-14.
- Fagot, B. I. (1977). Consequences of moderate cross-gender behavior in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48(3), 902-907.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6th ed). Prentice Hall.
- Kline, R. B., (2010). Principle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ress*.
- Kuppens, S., Grietens, H., Onghena, P., & Michiels, D. (2009).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control and children's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7(3), 607-623.
- Levendosky, A. A., Okun, A., & Parker, J. G. (1995). Depression and maltreatment as predictors of social competence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in school-age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19(10), 1183-1195.
- Lever Jr, O. W. (1976). New horizons in carbonyl chemistry: reagents for nucleophilic acylation. *Tetrahedron*, 32(16), 1943-1971.
- Levy, S. R., Ayduk, O., & Downey, G. (2001). The Role of Rejection Sensitivity in people's relationships with significant others and valued social group. In Leary, M. R. (Eds.), *Interpersonal Rejection*.
- Low, C., & Parker, J. G. (1999). Defining and assessing children's jealousy over friends: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the Friendship Jealousy Questionnaire.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Albuquerque, NM.
- Manzeske, D., & Stright, A. D. (2009). Parenting styles and emotion regulation: The role of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control during young adulthood.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 16, 223-229.
- Marsee, M. E., Kimnis, E. R., & Frick, P. J. (2004). *Peer conflict Scale*. Unpublished rating scale. University of Bew Orleans.
- Metcalfé, J., & Mischel, W. (1999). A hot/cool-system analysis of delay of gratification: dynamics of willpower. *Psychological review*, 106(1), 3.
- Nelson, D. A., & Crick, N. R. (2002).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Implication for childhood physical and relational aggression.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16(1), 161-189.
- Novaco, R. W. (1994). Anger as a risk factor for violence among the mentally disordered. In Violence and mental disorder. *Developments in risk assessment*, 21(1), 59.
- Nucci, L. P., Killen, M., & Smetana, J. G. (1996). Autonomy and the personal: Negotiation and social reciprocity in adult child social exchanges.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99(73), 7-24.
- Owens, L., Shute, R., & Slee, P. (2000). "Guess what I just heard!": Indirect aggression among teenage girls in Australia. Aggressive Behavior. *Official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Research on Aggression*, 26(1), 67-83.
- Preacher, K. J., & Hayes, A. F. (2008).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40(3), 879-891.
- Purdie, V., & Downey, G. (2000). Rejection sensitivity and adolescent girls' vulnerability to relationship-centered difficulties. *Child Maltreatment*, 5(4), 338-349.
- Rohner, R. P., & Pettengill, S. M. (1985).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among Kore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6(2), 524-528.
- Roth, M. A. (2002). *Navigating the minefields of social triangles: Adolescents' reaction to their friends' friends and romantic partner*.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Sheeber, L., Hops, H., Alpert, A., Davis, B., & Andrews, J. (1997). Family support and conflict: Prospective relations to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5(4), 333-344.
- Soenens, B., Vansteenkiste, M., & Luyten, P. (2010). Toward a domain-specific approach to the study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Distinguishing between dependency-oriented and achievement-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78(1), 217-256.
- Volling, B. L., McElwain, N. L., & Miler, A. L. (2002). Emotion regulation in context: The jealousy complex between young sibling and its relations with child and family characteristics. *Child Development*, 73(2), 581-600.
- Walter, J. L., & LaFreniere, P. J. (2000). A naturalistic study of affective expression, social competence, and sociometric status in preschooler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1(1), 109-122.

원 고 접 수 일 : 2021. 08. 26.
수정원고접수일 : 2021. 10. 19.
최종게재결정일 : 2021. 11. 25.

**The influence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on relational aggression:
The medi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friendship jealousy**

Joo Hye Kim

Eun Young Park

Daegu Catholic University

Master's degree student

Assistant Professor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n relational aggression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friendship jealousy, and whether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se variables by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gender and family form. Data of 554 middle school students living in Daegu and Gyeongsangbuk-do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ere were two major results. The first major result was what rejection sensitivity and friendship jealousy sequen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relational aggression. The second major result was gender differences which was shown by a multi-group analysis to examine in the path from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to rejection sensitivity, the path from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to relational aggression, and the path from friendship jealousy to relational aggression. This study was meaningful in that it expanded the understanding of relational aggression and identified directions for therapeutic interventions.

Key words : relational aggressio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jection sensitivity, friendship jealousy